

# 지난해 5명 사망 '롯데건설', 2024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8 송승현 기자 | 2024.04.26 08:59

2023년 롯데건설 사망노동자 5명 전원 하청노동자  
특별상에 '우아한청년들' '검찰' 선정



민주노총과 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이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건설을 2024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우아한청년들과 검찰이 특별상을 받았다. 사진=송승현

지난 한 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롯데건설이 2024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민주노총과 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는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과 검찰에게 수여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롯데건설에서는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롯데건설은 '건설현장 내 추락사망 사고 ZERO'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망한 5명 중 4명이 추락사했다. 각각 6m, 7m, 10m, 19m에서 떨어졌다. 다른 1명은 무너지는 지지대에 맞아 숨졌다. 모두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롯데건설은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2007년 6위(6명 사망), 2012년 2위(7명 사망), 2014년 5위(6명 사망), 2020년 4위(4명 사망)에 선정된 바 있다. 특히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롯데건설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61명이다.

최악의 살인기업 공동 2위는 한화와 현대건설이다. 두 건설사 모두 4명이 사망했다. DL이앤씨와 중흥토건, 현대삼호중공업이 각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공동 4위에 올랐다. 최악의 살인기업을 수상한 기업의 공통점은 사망한 노동자 전원이 하청노동자란 사실이다.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순위에 오른 기업 6곳 가운데 롯데건설, 한화, 현대건설 등 3곳은 과거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거나 여러 차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다. 고용노동부가 양경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중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총 584건(사망 5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297건(사망 303명)으로 전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절반인 50.8%를 차지했다.



민주노동총과 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이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건설을 2024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우아한청년들과 검찰이 특별상을 받았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이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건설을 2024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우아한청년들과 검찰이 특별상을 받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양경규 의원은 건설기업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해 “기업이 이윤을 위해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벌어지는 일들”이라며 “한 해 사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되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반복된다면 이건 틀림없이 사회가 살인을 방조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재계와 건설업계에서 반발해 2020년 발의된 특별법은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4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는 우아한청년들과 검찰이 선정됐다.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배달노동자 5명이 사망해 산재를 인정받았다. 민주노총 조사 결과 36.6%의 배달노동자가 위험운전을 하는 이유로 ‘이벤트 프로모션을 완료하기 위해서’라고 꼽았다. 우아한청년들이 기업을 홍보할 때 ‘라이더 산재보험 가입 장려’ ‘안전교육 실시’ 등 노동친화적인 이미지를 강조했지만 정작 배달노동자에게 목숨을 건 노동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 특별상 수상자는 검찰이다. 검찰은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에 대해 스스로가 정한 구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있다. 책임을 묻는 대신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는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특별상을 수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있음을 명시한 법이다.

특히 지난해 3월 울산 에스오일 탱크폭발 사고로 하청노동자 2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사고에서도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뒤 경영책임자의 권한을 위임했다는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리한 바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것이 경제개발이라는, 나라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은폐되고 묵인됐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결심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위험할 것 같으면 그 일을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하다 죽는 사회를 멈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면서도 오히려 기업의 이름을 가려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항의와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또한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를 중단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책임져야 할 정부가 기업 눈치를 보느라 바쁜 까닭에 지금도 ‘기업살인’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노동자의 희생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업재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모두 함께 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은 2006년부터 시작됐다. 하루에 5~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는 현실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발표한다. 사고사망 외에도 산재사망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환기하기 위해 특별상을 선정하고 있다.



민중노총과 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이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건설을 2024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우아한청년들과 검찰이 특별상을 받았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이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건설을 2024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우아한청년들과 검찰이 특별상을 받았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이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건설을 2024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우아한청년들과 검찰이 특별상을 받았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이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건설을 2024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우아한청년들과 검찰이 특별상을 받았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2024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검찰**  
PROSECUTION SERVICE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산재사망 책임을 강화했지만, 현재 검찰의 경영책임자 수사와 기소는 드물다. 이에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의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와 기소를 요구하며 '검찰'에 이 상을 수여한다.

2024년 4월 25일

**롯데건설(주)**

**롯데건설 CEO**

위 기업은 2023년 산업재해로 가장 많은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최악의 살인기업이다. 이에 2024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하여 증서를 수여한다.

2024년 4월 25일

재사망대책대안 공동위원장

**롯데건설(주)**

**전원 하청**

**2위** 우한화

**4위 사망** 연대건설

**4위** 연대건설

**3위 사망** 송흥토건(주)

**3위 사망**

**불기소 혐의없음**

**시민과 함께 만든 중대재해처벌법 검찰이 망친다**

민주노총과 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이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건설을 2024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우아한청년들과 검찰이 특별상을 받았다.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이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건설을 2024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우아한청년들과 검찰이 특별상을 받았다. 손지훈 건설산업연맹 플랜트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중총총과 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이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건설을 2024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우아한청년들과 검찰이 특별상을 받았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검찰이 산재사망기업에게 불기소 처분하는 행태를 비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이 사진은 첫 번째 사진과 유사한 장면으로,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이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건설을 2024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우아한청년들과 검찰이 특별상을 받았다. 배민라이더가 우아한청년들에게 수여된 특별상을 배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송승현 기자 now.worknworld@gmail.com

---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